



PORSCHE



## 포르쉐, 2018 제네바 모터쇼 참가

프레스킷

# 목차

<b>연비와 배출량</b>	<b>3</b>
포르쉐, 2018 제네바 모터쇼 참가	
<b>미래와 현재: 고성능 주행 콘셉트 모델 2종 월드 프리미어 공개</b>	<b>4</b>
포르쉐의 첫 번째 CUV(Cross-Utility Vehicle) 콘셉트 모델 세계 최초 공개	
<b>포르쉐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 액티브 라이프스타일 선사하는 고성능 전기 자동차</b>	<b>6</b>
자연 흡기 엔진을 장착한 가장 강력한 911 시리즈 세계 최초 공개	
<b>포르쉐,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신형 '911 GT3 RS' 모델 월드 프리미어 공개</b>	<b>11</b>

---

## 연비와 배출량

**911 GT3 RS:** 도심연비 19.2 l/100 km, 고속도로연비 9.0 l/100 km, 복합연비 12.8 l/100 km;  
CO<sub>2</sub> 배출량 291 g/km

포르쉐, 2018 제네바 모터쇼 참가

## 미래와 현재: 고성능 주행 콘셉트 모델 2종 월드 프리미어 공개

포르쉐는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자사의 오랜 연구 결과물인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 (Mission E Cross Turismo)를 선보이며, E-모빌리티의 가까운 미래를 제시한다. 또한, 가장 대담한 고성능 스포츠카 중 하나인 '신형 911 GT3 RS'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한다.

###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 CUV(Cross-Utility Vehicle) 전기차 콘셉트 모델

포르쉐의 첫 번째 CUV 모델인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는 전기 스포츠카 '미션 E'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는 포르쉐의 전형적인 스포츠카 디자인과 오프로드 특징을 결합하고, 전기 구동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콘셉트를 종합한 크로스오버 모델이다. 일상을 위한 운전자는 물론, 산악 바이킹, 서핑 또는 겨울 스포츠 등 모험을 추구하는 운전자들을 위해서도 적합하다. 차량에는 수준 높은 품질의 다재 다능한 장비들이 적용되었다. 포르쉐는 최고 출력 600마력(440kW), 주행 거리 500km, 15분 이내 80%까지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를 통해 다시 한번 고성능 E-모빌리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는 포르쉐의 모든 콘셉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미션 E' 세단 개발에 잠재적 가능성을 전달한다.

### 모터스포츠 기반 모델: 520마력을 발휘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흡기 엔진

포르쉐는 전통적으로 제네바 모터쇼에서 자사의 새로운 고성능 스포츠카 모델을 최초로 공개해왔으며 2018년에도 이 같은 전통은 계속된다. 포르쉐는 일반 도로에서도 허용되는, 자연 흡기 엔진을 장착한 가장 강력한 트랙 스포츠카 신형 '911 GT3 RS'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한다. 4리터 6기통의 수평대향 엔진을 장착한 신형 '911 GT3 RS'는 9.000rpm에서 최고 출력 520마력(383kW)을 발휘한다. 신형 GT 모델의 심장인 엔진은 물론, 고도로 정밀화된 새시와 리어 액슬 스티어링 역시 모터스포츠 기술의 산물이다. 신형 '911 GT3 RS'은 극한의 엔진 속도 범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파워, 최적화된 에어로다이내믹 다운포스 및 측면 지지력을 위해 디자인된 경량화된 차체가 적용되어,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

## 스위스 시장: 2017년도에도 계속된 고객들의 스포츠카 모델 선호 현상

지난 해, 로크르즈(Rotkreuz)에 본사를 둔 포르쉐 슈바이츠 AG(Schweiz AG)는 총 3,621대의 차량을 고객들에게 인도했다. 포르쉐의 최고급 모델 라인이 각광을 받은 가운데 특히, 마칸 GTS는 가장 수요가 높은 모델이었다. 포르쉐 마칸은 출시 이후, 2017년에만 총 1,516대가 판매되며 알프스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스포츠카 판매량을 보면, '911 카레라 4 GTS'의 쿠페와 카브리올레 버전 및 911 GT3 등 고성능 GTS 모델들의 인기가 높았다. 그란 투리스모의 경우, 신형 파나메라의 35%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주문되며, 포르쉐의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제품 전략을 입증했다.

70년 전만 해도 신생 기업이었던 포르쉐는 7월 스위스 그랑프리가 열리기 전, 1947년과 1948년 사이에 페리 포르쉐가 개발한 최초의 포르쉐 모델 '타입 356(미드 엔진 스포츠카 356-001)'을 세상에 처음 공개했다. 이 첫 번째 포르쉐 프로토타입 모델과 5종의 스포츠카 시리즈가 1년 후 제네바 모터쇼 출품을 위해 스위스로 보내졌으며, 이것이 포르쉐가 자동차 제조 기업 브랜드로서 모터쇼 첫 참석이었다.

포르쉐의 첫 번째 CUV(Cross-Utility Vehicle) 콘셉트 모델 세계 최초 공개

## 포르쉐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 액티브 라이프스타일 선사하는 고성능 전기 자동차

미래를 향한 첫 번째 단계: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이는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Mission E Cross Turismo)'는 포르쉐 최초의 CUV(Cross-Utility Vehicle) 전기차 콘셉트 모델이다. 이 새로운 포르쉐 올라운더는 여행, 스포츠, 아웃도어 레저 등 액티브한 더욱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되었다. 사륜 구동으로 스키장 진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장비를 실을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가진 유연한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최신 마운팅 시스템으로 서핑보드, 포르쉐 E-바이크 등을 손쉽게 운반할 수 있다.

새로운 4도어 4인승 차량은 두드러진 오프로드 요소의 더욱 감각적인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및 아이트래킹 기능이 내장된 최신 디스플레이의 컨트롤 콘셉트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 전장 4.95 미터의 콘셉트 모델은 고속 충전 네트워크 충전을 지원하며 인덕션, 충전독, 포르쉐 홈에너지 관리시스템(HEMS,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 현재 도로 주행 테스트까지 마친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 콘셉트 모델은 지난 201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 모터쇼(IAA)'에서 처음 공개한 미션 E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디자인: 확고한 포르쉐 DNA 계승

낮은 보닛과 역동적인 커브의 프론트 윙: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의 전면은 한 눈에 봐도 포르쉐 스포츠카의 디자인 아이콘 '911' 모델을 계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에어 커튼"으로도 불리는 프론트 에어 인테이크는 혁신적인 디자인 요소 중 하나다. 또 다른 특징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좁은 폭의 3차원 글래스 성분으로 개발된 포르쉐 고유의 4포인트 주간 주행등이 탑재된다. 4개의 플로팅 윙에 내장된 조명은 새로운 4포인트 표시기도 장착되어 있다. 특히, 포르쉐 X-사이트(X-Sight) 고성능 하이 빔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견고한 휠 아치와 도어 실, 눈에 띄는 프론트 스포일러, 리어 에이프런 및 높은 지상고 등의 다양한 오프로드 요소도 적용되었다.

차체는 후면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흐르는 스포티한 루프라인, 이른바 포르쉐 플라이 라인 실루엣으로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의 후면 디자인을 연상시킨다. 사이드 윈도우의 역동적인 디자인 역시 포르쉐만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반영했다. 전륜 뒤 에어 인테이크에 위치한 넓은 윙과 3차원 사이드 월은 전폭 1.99 미터의 콘셉트 모델을 더욱 스포티한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만들어 준다. 오프로드 스타일의 측면 스커트와 275/40 R 20 타이어를 장착한 20인치 휠 역시 차별화된 특징이다. 포르쉐 고유 컬러인 라이트 그레이 메탈릭으로 도장된 차량은 뒤에서 봐도 단 번에 포르쉐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차량 외관은 스포티하고 유려한 루프 스포일러, 전통적인 전장 조명이 돋보이며, 내부에는 회로 경로 그래픽과 함께 3차원 커버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포르쉐 레터링이 각인되어 있다. 배터리 충전 시 "Porsche"의 "E" 알파벳이 점멸되며 차량 내 에너지 흐름을 운전자들이 직접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윈드스크린부터 테일게이트까지 이어지는 대형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는 넓고 여유로운 공간감을 제공한다.

## 다재 다능함: 모빌리티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기능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는 향후 포르쉐 브랜드의 크로스 유틸리티 특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이다. 이 새로운 크로스오버 차량은 여행, 일상 생활, 모험에 적합할 뿐 아니라 도시나 시골 어떤 환경에서도 유용하며 특히,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 등 액티브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적합하다. 전고 1.42미터, 4인승의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는 다양한 장점을 겸비했다. 두 개의 개별 리어시트 등받이에 해치가 결합되어 스키와 같은 부피가 큰 짐을 적재하는 데 유용하고, 필요에 따라 시트 등받이는 접을 수도 있다. 러기지 컴파트먼트에는 조절 및 제거 가능한 벨트가 달린 레일 시스템으로 짐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다. 또한,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 고객들은 차량 외부에서도 포르쉐 E 바이크 (Porsche E-Bike)와 함께 사용하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포르쉐 E 바이크는 페달을 밟을 때 하이 퍼포먼스 전기 드라이브에서 전력이 지원되는 전기 자전거로, 포르쉐의 디자인, 기술력 및 성능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 인테리어: 경량 구조

포르쉐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인테리어를 통해 자사의 클래식한 요소들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했다. 계기판은 윙 형태의 상하부 섹션으로 구성되어 차체의 폭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대시보드와 초광폭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수평으로 넓게 배치된다. 독립형 계기판은 운전자를 향해 곡선 형태로 기울어져 있으며, TFT

스크린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시각화되는 세 개의 원형 계기판으로 구성된다. 앞 좌석 사이의 센터 콘솔은 대시보드 방향을 향해 있으며, 센터 콘솔의 간접 조명은 실내 조명과 어우러져 유니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로 포르쉐 레터링이 각인되어 있으며, 버킷 타입 레이싱 시트를 연상시키는 스포티한 시트와 대시보드 등 가시적으로 경량화된 구조가 눈에 띈다. 도어 패널에는 혁신적인 3D 요소가 적용되었다. 노르딕 블루(Nordic Blue) 컬러로 피막 처리된 에어벤트나 윈도우 레귤레이터 모듈 등의 부품들은 블랙(Black)과 라이트 그레이(Light Grey)가 어우러진 투 톤 컬러의 아닐린(Aniline) 가죽으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와 대조를 이룬다.

## 파워트레인: 600 마력 이상의 스포티한 E-퍼포먼스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는 600 마력(440 kW) 이상의 시스템 출력을 갖춘 2개의 PSM(permanently excited synchronous) 모터를 장착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단 3.5초, 시속 200km까지는 12초가 소요된다. 전기차 중 전례 없는 지속적인 파워를 보장하며, 어떠한 성능 저하도 없이 연속적으로 가속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네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를 자동으로 분산시키는 포르쉐 토크 벡터링 (Porsche Torque Vectoring)으로 더욱 안전하고 역동적인 주행도 가능하다.

## 새시: 안정성과 민첩성을 위한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사륜 구동 드라이브 시스템은 탁월한 민첩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최대 50 밀리미터까지 공간을 증대시킨다. 특히, 포르쉐 다이내믹 새시 컨트롤(Porsche Dynamic Chassis Control, PDCC) 시스템을 통해 코너링 시 차체를 안정화시키고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 콘셉트: 독특한 사용자 경험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는 더욱 새로워진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 콘셉트를 통해 독특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운전자의 최적화된 시야 영역에 위치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더욱 직관적으로 제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운전자는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손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커넥티비티 솔루션으로 차량 안에서도 완벽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주요 디스플레이 및 제어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아이트래킹 시스템이 내장된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세 개의 가상 원형 계기판으로 포르쉐 커넥트(Porsche Connect), 퍼포먼스(Performance), 드라이브(Drive), 에너지(Energy), 스포츠 크로노(Sport Chrono) 등 총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특히, 실내 거울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는 아이트래킹(eye-tracking) 시스템은 운전자가 어느 계기판을 보고 있는지 자동으로 인식하며, 운전자가 바라보는 계기판은 앞쪽으로 나오는 반면, 다른 계기판은 뒤로 이동해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스티어링 휠의 스마트 터치 컨트롤을 사용해 작동한다.
- **패시저 디스플레이:** 조수석 전면에 가로로 길게 위치해, 탑승자는 아이트래킹과 터치 기술로 다양한 앱을 조작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내비게이션, 온도 조절, 연락처 등의 기능도 활용 가능하다.
- **센터 콘솔의 터치 컨트롤 상세 정보 메뉴 포함**
- **소형 터치스크린:** 다기능 윈도우 레귤레이터 모듈(시트 조정 및 시트 컴포트 기능 용)과 대시보드 좌우 측의 위치한 에어 벤트에 소형 터치스크린이 탑재되어 있다. 터치스크린을 좌우로 밀어 환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 캐빈(smart cabin)’ 방식은 조작을 간소화한다. 차량 설정, 내부 온도, 실내 조명은 탑승자의 선택과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 외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다. 태블릿,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를 통해 에어컨 시스템에서부터 내비게이션까지 모든 맞춤형 옵션을 탑승 전에 미리 설정할 수 있다.

## “데스티네이션 앱(The Destinations App)”: 운전자의 여행을 돕는 개인 비서

포르쉐 커넥트에서는 이미 20여 종의 디지털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의 데스티네이션 앱은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보여준다. 운전자들은 해당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데스티네이션 앱은 여행지 추천, 간편 예약, 경로 설정, 식당 및 스포츠 시설 안내 등을 제공한다. 또한, 데스티네이션 앱을 통해 경로 설정은 물론, 여행에 어울리는 음악, 실내 온도, 조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 충전: 더 쉽고 더 빠르게

800볼트 전압 시스템 도입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단 15분 충전만으로도 400 km(유럽 NEDC기준)까지 주행할 수 있다.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는 이동 중이나 집에서도 충전 가능하며 특히, 고출력 충전(High-Power Charging, HPC) 네트워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합작 투자 '아이오니티(IONITY)'를 이용할 수도 있다. 직장에서는 인덕션 기술을 통해 차량 충전이 가능하며, 가정에서는 충전 도크나 포르쉐 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HEMS)을 사용하여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다. HEMS는 가정 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 재충전하는 태양광 시스템과 결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자연 흡기 엔진을 장착한 가장 강력한 911 시리즈 세계 최초 공개

## 포르쉐,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신형 '911 GT3 RS' 모델 월드 프리미어 공개

포르쉐가 오는 3월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모터스포츠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스포츠카 신형 '911 GT3 RS'를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한다. 최고 출력 520마력(383kW)의 신형 '911 GT3 RS'는 모터스포츠 새시와 자연 흡기 방식의 4리터 엔진을 장착한 가장 강력한 911 시리즈 중 하나다.

911 GT3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작의 최신작 '911 GT3 RS'는 강력해진 엔진과 개선된 리어 액슬 스티어링을 적용한 구동 장치의 결합으로 한층 더 극대화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리어 액슬 스티어링은 역동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911 GT3 RS'는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단 3.2초가 소요되며, 최고 속도는 312km/h에 달한다. 포르쉐는 '911 GT3'와 '911 GT2 RS' 출시에 이어 연내에 일반 도로에서 허용되는 세 번째 GT 스포츠카를 선보일 예정이다.

### 레이스 트림 기반의 에어로다이내믹과 인테리어

신형 '911 GT3 RS'는 모든 면에서 에어로다이내믹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최적화된 중량의 넓은 차체와 클래식하고 견고한 리어윙 디자인으로 더욱 향상된 에어로다이내믹을 구현한다. 레이스 트림 기반의 독특한 외관은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전한 측방향 지지력을 제공하는 카본 소재 풀 버킷 시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스포티한 디자인 일관성을 유지한다. 또한, 스토리지 네트, 오프닝 루프가 장착된 경량 도어 패널, 흡음 장치, 그리고 새로운 경량 리어 리드는 스포티한 외관을 더욱 강조한다.

### 520마력을 발휘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흡기 엔진

신형 '911 GT3 RS' 모델에 장착된 4리터 6기통 자연 흡기 엔진은 스포츠카를 새로운 한계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모델 및 911 GT3보다 20마력(15kW) 향상된 수평대향 엔진은 최대 9,000rpm에 달하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특별 제작된 7단 PDK와 고성능 엔진의 결합으로 탁월한 주행 성능을 보장한다.

## 모터스포츠 새시 및 클럽스포츠 패키지

신형 '911 GT3 RS'는 모터스포츠 기술이 적용된 새시 덕분에 보다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모든 암에 장착된 볼 조인트로 기존의 탄성 베어링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보장한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265/35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된 프런트 액슬의 20인치 경량 휠은 민첩성과 조향성을 향상시키고, 325/30 타이어가 장착된 리어 액슬의 21인치 휠은 견인력을 높인다.

신형 '911 GT3 RS'는 모든 GT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로 클럽스포츠 패키지를 기본 사양으로 제공한다. 클럽스포츠 패키지는 롤 오버 바, 수동 소화기, 배터리 분리 스위치 예비장치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 경험을 위한 6점식 안전 벨트 등을 포함한다.

## 차체 중량을 추가로 경량화하는 바이작 패키지와 마그네슘 휠

포르쉐 모터스포츠 부서는 더욱 역동적인 주행을 즐기는 운전자들을 위해 차체 중량을 추가로 경량화할 수 있는 바이작 패키지 옵션을 제공한다. 바이작 패키지는 탄소 소재의 새시와 내·외관 디자인, 그리고 옵션으로 제공하는 마그네슘 휠을 포함한다. 신형 '911 GT3 RS'는 바이작 패키지를 통해 차체 중량을 최대 1,430kg까지 줄일 수 있다.